

급식실 증축·비세는 교실 보수 급한데...

道교위, 여수 학교시설 예산 22억 삭감

“타 학교와 형평 안맞다”... 학부모들 반발

여수시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교육위원회는 올해 추경 세출예산안 심의를 벌여 총 29억5천809만원을 삭감했으며 이중 대부분인 21억9천406만원이 여수 지역 학교 시설개선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여수지역 교육예산은 여수 중앙여고 다목적교실 겸 급식실 증축 예산 16억원 전액, 여수정보과학고

노후 교실보수 공사비 4천590만원 전액, 한영고 창조보수 공사비용 1억 5천94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일선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에 제동이 걸렸다. 여수 중앙여고는 그동안 강당이 없어 우천시 학교행사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급식시설 부족으로 전체 학생들이 4교대로 식사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갑수 중앙여고 교장은 “1천600여명의 학생들이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좁은 시설에서 4교대로 식사를 해결하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예산이 삭감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위원들이 열악한 교육현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러우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 제출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위원회 유제원 의장은 “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 어긋

불가피하게 삭감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출신 김성 교육위원도 “여수 중앙여고의 경우 재단전입금 2억원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삭감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호 전남도교육청 예산과장은 “학교 BTL 사업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BTL로 지원받던 여수 중앙여고의 강당·급식실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삭감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여수=박양규기자 ykpark@

CO₂ 줄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자율협약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15개 업체가 지난 3일 지구온난화 예방 및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들 업체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사업장의 효율적 연료 사용 ▲자원의 재활용 및 설비 개선 ▲온실가스 배출관리 체계 구축 ▲온실가스 자율적 감축 목표 수립 ▲온실가스 배출거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는 GS칼텍스와 LG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남해화학, 대림산업, 삼남석유화학, 여천NCC, 제일모직,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바프,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봉사하고 할인도 받으세요”

순천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개설 등 인센티브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소장 장숙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의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고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에서 약정 할인율(5~30%)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할인 가맹점 가입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sc1365.com)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인센티브 확대가 자원봉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의 061-749-3845)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단속

여수경찰, 지역병원 20여곳 압수 수색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속출해 '나이롱환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4일 “일부 가짜 환자들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환자들이 치료한 병원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여수와 순천지역의 정형외과 등 20여개 병원을 압수수색해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회계장부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가짜로 입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 시비 2라운드

대학측 “글로벌 특성화 캠퍼스 설립” 다시 표명

순천시 “대학발전협의회 논의 약속 어겼다” 반발

순천대학교 '공대이전'을 둘러싸고 지역내 갈등이 다시 일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3일 “광양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연관있는 3~4개 학과를 신설해 가칭 '글로벌특성화공과대학 광양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순천대 관계자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과대학 광양캠퍼스 설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순천에 있는 공대의 10여개 학과는 교육중심 학과로, 광양에 신설하게 될 학과는 연구중심 학과로 각각 육

성할 계획으로, 특히 광양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가 광양지역 공대 설립의지를 다시 표명함에 따라 지난 1월 공대 이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지난 2월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순천대 발전협의회에서 공대 이전 문제를 논의키로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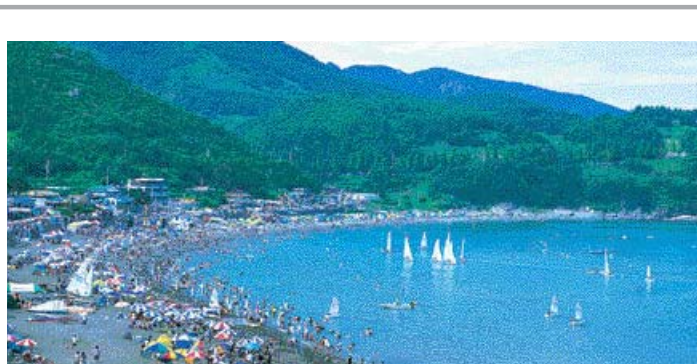
노관규 순천시장은 4일 간부회의

에서 “순천대가 공대이전을 포함한 대학발전 문제를 발전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해놓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공과대학 광양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뒤통수 때리가 아니냐”며 순천대 측을 비판했다.

일부 주민들은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순천만 관광자원화와 생태수도 건설 등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 판에 순천대 공대 이전 문제로 지역내 불협화음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순천대 관계자는 “광양캠퍼스가 설립되더라도 순천에 있는 공대는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검은모래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해수욕장.

'청정 여수' 여름 바다가 부른다

만성리 등 해수욕장 27일 개장

만성리 등 여수지역 주요 해수욕장이 오는 27일 개장한다.

방죽포 해수욕장 등 여수지역 11개 해수욕장도 오는 28일부터 7월4일 사이에 일제히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손님맞이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은 모래로 유명한 만성리 해수욕장은 지난달 24일 '검은모래 눈뜨는 날'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또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무사고 기원제와 함께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행사를 27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記事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 908-8111	목포 (061) 276-9200	나주시 (061) 332-5544
여수 (061) 653-8444	강진 (061) 434-6830	나주군 (061) 332-7764
영양 (061) 792-8111	무안 (061) 452-8535	담양 (061) 383-8111
순천 (061) 746-8111	신안 (061) 243-3758	영암 (061) 473-2340
홍도 (061) 842-2121	완도 (061) 554-6677	장성 (061) 392-2100
구례 (061) 783-8111	영광 (061) 351-0055	장흥 (061) 863-8822
곡성 (061) 362-8111	진도 (061) 543-0100	화순 (061) 374-4423
보성 (061) 853-9700	함평 (061) 324-8111	광산 (062) 944-0444
	해남 (061) 534-5151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1인 기준)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대우호텔 : (062) 228-6000 | 예약문의 : (062) 228-4711-2

골드레이크CC

골프장회원
개인·법인·VIP

골프장회원
개인·법인

골드스파&리조트

골프장회원
19·28·30·57달말

마스터스회원
(골프+캠핑회원)
19·28·30·57달말

골드레이크빌리지

다목적휴가주택회원
-51평형 - 20세대
-81평형 - 4세대

문의 : 대구·충청권 054-250-2500 | 광주·전남권 062-228-2107

큰바다 해물탕

해물탕 전문점

062-515-3339-40